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한승호 임마누엘, 박주원 올리벳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김현진 소화데레사, 유수진	봉헌금: \$ 370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합계: \$ 370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금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 주 봉헌봉사:
다음 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 매월 마지막 주는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한진 베드로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0월 5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조선 후기의 문인 유만공은 추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누렇게 익은 들녘 풍작을 보니/ 모든 것이 새로 나고 맛난 것들일세./ 다만 원컨대, 한 해 먹을 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과 같은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더 바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추석을 맞아 하느님의 안배하심과 조상의 음덕, 그리고 농부들이 흘린 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이 가족애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우한 일생을 보냈던 천상병 시인이 추석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박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나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이 모일 수 없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홀로 집을 지키며 외롭게 추석을 보내는 이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설에서 외롭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추석이 오히려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설움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또한 추석이 되면 오히려 더 서글픈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실향의 설움을 안고 사는 이들입니다.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그들의 슬픔과 설움이 가실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삼바오로
(608) 628-7977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9월 30일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 2, 22-24, 26 ᄒᆞᆫ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 14, 13-16

화답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12, 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2 봉헌: 211 성체: 175 파견: 472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갖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며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곡식을 수확하는 데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갖가지 조건들을 채워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조물주 앞에 참으로 겸손한 우리 조상들의 신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는 자신의 수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 낸 것인 양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가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잘된 것을 망각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는커녕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더 나아가 우리 생명 또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연장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특별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마련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좋은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늘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1. 가톨릭 신앙 입문

- 예비자 교리 신청을 받습니다. 영세를 받고 싶거나 영세를 받았더라도 가톨릭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박상훈 신부님에게 알려주십시오.

2. 10 월 독서, 간식 및 청소 담당: 학부생 구역

3. 추석 미사 음식 장만을 위해 고생해 주신 성모위원, 각 구역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KCCM 주소록을 가족당 한 부 썩 가져가세요. 동일 주소록은 굿뉴스 웹사이트와 <http://tinyurl.com/kccmdirectory> 에 있습니다. 교우분들이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바오로 수도회 창립자이신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봉헌해 봅시다.

“나의 하느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 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따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제물에 합쳐 저의 온 존재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비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저의 성화를 위하여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